우암학원 창학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 全南日報

제10259호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음력 5월 21일


광주 전역을 누비는 최고의 광고 플랫폼!
全南日報와 (주)가온엔이 함께합니다!
광주 시내버스 광고 문의전화 062-366-5002

# “광주형 통합돌봄, 국가 복지모델로 육성해야”

## <4>‘일상 속 돌봄’ 국가책임형 전환

### “국가가 돌본다”…기본사회 본격화
### 광주다움 시책, 전국 표준화 가능성
### 일상·의료 연결한 새 시스템 주목

이재명 정부가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우면서, 복지정책의 기조가 국가책임형 돌봄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광주광역시가 역점 추진해온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 복지체계 전환의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선별복지를 넘어, 돌봄·주거·의료 등 일상의 필수 영역에서 공공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선 당시부터 이 대통령은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지역 내에서 통합 지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러한 구상은 광주광역시가 지난 202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과 방향을 같이한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4월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구축, 시민 중심형 보편적 사회서비스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보였다.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면서 부족한 틈새에는 ‘광주+돌봄’(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 편의·일시보호 7대 분야) 서비스를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했다.

지역 96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300여명, 70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 관리사, 의료인, 식사 또는 청소지원 인력 800여명이 협업하며 약 1200명의 돌봄 네트워크가 운영 중이다.

시행 3년 차를 맞은 올해, 광주의 통합돌봄 정책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시 복지건강국 결산심사에서 “시행 3년차에 접어든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접근 방식이 지역사회 돌봄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통합돌봄 대상자 8595명을 지원했는데, 이는 연간 목표 인원(6000명)의 143.3%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같은 해 총 2만3328건의 현장 방문이 이뤄졌으며, 이 중 7289건(31.2%)은 별도 신청이 없는 선제적 방문을 통한 발굴 사례로, 은둔·위기가구 대응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

정책의 외부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 돌봄은 지난해 11월 행안부 주관의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도전한 647개의 혁신 정책 중 으뜸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3면에 계속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동강대 K-컬처 페스티벌**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시교육감, 문인 북구청장, 정준호·전진숙·조인철 국회의원, 이민숙 동강대 총장, 김동진 광주대 총장, 길강욱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소장과 대학생 등이 15일 광주 동강대학교 나이팅게일홀에서 열린 2025 K-컬처 페스티벌에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

### 캐나다 방문… 취임 후 첫 해외일정
###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으로, G7이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계엄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에는 G7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대상국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회의 참석을 전후해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으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개최 여부에 대해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한미 간 현안으로 관세 문제와 안보 관련 사안들이 있고, 이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을 타개해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 문제와 관련해) 협상팀이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미) 정상이 회동한다면 이 실무협상을 추동하는 동력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열려있는 입장이다.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 견고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관계라는 점은 이 대통령도 누차 얘기했다”며 “다자 간 여러 일정이 조율 중이어서 (회담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연일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는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에 자제를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2025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디지털 신기술 아이디어 공모전(광주)

접수기간 2025. 6. 9.(월) ~ 7. 18.(금) 13:00 까지

공모주제 디지털 신기술(AI, BC, Data, N/W, IoT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관련 우수 아이디어 발굴

공모자격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광주광역시 거주자
※ 공고일 전일(2025.6.9.)까지 광주지역 거주이력 혹은 재직/재학 이력 증빙 필수

접수방법 지원신청서 이메일 제출(icthonam@naver.com)
※ 공고문 및 신청양식 홈페이지 참조

시상규모 총 9개팀 (총 800만원)

| 구분 |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
| 시상항목 및 시상금 | 1팀 / 300만원 | 1팀 / 200만원 | 2팀 / 각 100만원 | 5팀 / 각 20만원 |

시상혜택 - 시상금 지급, 상장 수여 및 우수수상자(대상) 전국공모전 출전(멘토링 지원)
- 지역 우수수상자 중 선발하여 국외 연수 프로그램 참가 기회 제공

※ 자세한 사항 및 공고문 확인 : honamict – 커뮤니티 – 공지사항 또는 QR코드 접속하여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 gicon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